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우석대 석좌교수

고결하게 살았고,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독한 권력에 목숨을 잃었던, 뛰어난 학자의 죽음은 500년이 지나도 슬픔을 자아내게 해 준다. 1498년은 연산군 4년으로 무오사화가 일어난 해다. 그 무렵 45세이던 금남(鎭南) 최부(崔溥)는 흥문관 교리(敎理)와 예문관 응교(應敎)에 올라 벼슬길에 탄탄대로로 열리고 있었다. 오래지 않아 사간원 사간(司諫)의 직책에 있으면서 연산군의 잘못을 상소로 올리고, 고관대작들의 비행을 폭로해서 한창 임금의 미움을 사고 있을 때, 무오사화로 점필재 김종직이 부관참시를 당하고, 제자인 데다 점필재의 문집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46세이던 최부는 함경도 단천(端川)으로 귀양 갔다. 나라의 최고 북방 지역에 버려진 것이다.

금남 최부(1454~1504)는 나주시 동강면 성지마을에서 진사 최택(崔澤)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는 아버지에게서 글을 배우고 커서는 당대의 학자 점필

금남(錦南) 최부(崔溥)의 학문과 삶

재 김종직의 문하에 들어가 경전과 역사학을 익혀 높은 식견을 지니게 된다. 24세에 생원·진사과에 3등으로 합격하고 29세에 알성시에 급제하여 세상에 이름을 날렸다. 초급 벼슬에 있으면서 '동국통감'의 편찬에 참여하고, 33세 때에는 중시(重試) 을과(乙科)의 1등으로 합격하여 육당인 흥문관 부교리에 임명된다. 33세인 1488년 9월 제주 3읍의 추쇄경차관(推쇄敬差官)으로 선발되어 제주도에 건너가 직무를 수행하다 35세인 윤정월에 부친상을 당했다. 소식을 듣고 바로 급히 고향인 나주로 귀향하던 배는 태풍을 만나 표류하여 중국의 태주(台州)에 이르렀다. 천신만고의 고생을 겪고 6월에 한양으로 돌아온 최부는 임금에게 '표해록'(漂海錄)을 저술하여 바쳤다. 추쇄경차관이란 육지에서 죄를 짓고 제주도에 도피해서 사는 죄인들을 색출하는 직책이다.

이렇게 해서 저술된 '표해록'은 이른바 세계 3대 여행기의 하나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나 '하멜 표류기'와 명성을 나란히 하는 유명한 책이다. '표해록'은 저작된 지 80년 뒤인 1578년에 최부의 외손자 미암 유희춘에 의하여 최초로 간행되었으며, 그 뒤 중국어나 일본어로 번역되었고, 우리말은

물론 영어로까지 번역된 세계적인 문헌이 되었다. 배가 제주도를 떠날 때 함께 승선한 사람이 모두 43명으로 하인배들도 많이 동승하여 위급할 때마다 서로 다투며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부의 인격과 지도력에 힘입어 태주에서 북경을 경유하며 중국 황제를 알현하고, 다시 북경에서 한양에 이르기까지 43명이 아무 탈 없이 귀국하였음은 최부의 인품과 교양을 충분히 짐작하게 해 주는 사실이었다.

1488년 윤 정월 초사흘, 최부와 그의 일행 43명은 바다에 표류하다 중국의 육지에 도착하여 온갖 고초를 겪다가 그 해 6월에 한양에 이르는데, 그때 보고 들은 중국의 풍토와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내용 때문에 중요한 역사·지리의 책이 되고 있다. 학자와 문장가가 아니고는 그렇게 멋진 표현으로 해적을 만나 당하던 고초나, 중국에서는 왜구 혹은 일본의 해적으로 오인받는 고통을 적나라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학자이자 문장가인 최부,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명저를 남길 수 있었다.

최부는 애초에 나주 출신이었으나, 해남의 정씨 집안으로 장가들어 젊은 시절을 대체로 해남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여

세 집안의 학자들을 길러 냈다. 외손자 미암 유희춘이 기록한 '금남선생사실기'에 의하면 해남 윤씨 윤효정, 자신의 아버지 유계린, 임역령의 숙부 임우리 등 세 학자를 길러 내 해남에 문풍(文風)을 일으키고 문명의 고을로 변화시켰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유희춘은 "외할아버지는 경술(經術)과 기절(氣節)이 뛰어났으며 박학과 뛰어난 기절로 온 세상에 이름이 났다"라고 말한다. 또한 불의에 굽히지 않고 잘못된 임금과 고관대작들의 비행에 대하여 직설적으로 간(諫)하는 인물이라고 평했다. 조선 초기의 금남 최부로부터 호남의 뛰어난 의리 정신이 꽃피우고 있음을 알게 된다.

억울하게 북쪽 객지에서 죽음을 당한 의인에 대하여 역사는 침묵하지 않았다. '왕조실록' 연산군 10년 10월 15일의 기사에 사관(士官)은 이렇게 썼다. "(최부는) 공평 정직했고 경전과 사서에 박통하고 문장에 넉넉했다. 간관이 되어서는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회피하는 바가 없었다(公廉正直 博通經史 富於文詞 爲諫官 知無不言 無所回避)"라고 찬사를 바쳤다.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법조칼럼



정찬욱
법무법인 맥 변호사

나를 비롯한 변호사 대부분은 타인이 삶 속에서 겪는 문제에 대해 법률 전문가로서 조언을 하고, 때로는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그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변호사는 일을 통해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참 좋은 조건을 갖춘 직업이라 생각한다. 곤경에 빠진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 돕는 과정에서 전문가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을 만나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때는 배움의

변호사와 의뢰인의 소통

로 인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소모적인 분쟁으로 고민하고 고통 받는 사람을 설득해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해 가는 과정을 통해 변호사로서 한층 성장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다.

나를 믿고 소송을 맡겨주는 의뢰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을 위해, 당신의 편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것의 가장 기초는 바로 의뢰인과의 '소통'이라 생각한다.

나는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왔을 때부터 직접 상담을 하며, 그 이후에도 필요할 때마다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다. 소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나 하소연을 1시간 넘게 주고 받기도 한다. 그리고 준비 서면 등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나면 의뢰인에게

그 초안을 보내주고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있거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의뢰인 중 대다수는 무적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스스로의 사건에 대해 깊게 관여하고 싶어 하고 본인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되어 가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해 하며, 스스로 법정에 나와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 원하는 의뢰인도 많아지고 있다.

나도 때로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 더 흥미를 가지고 집중하기도 한다. 어쩌면 한 개인이자 변호사로서의 성취욕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사건의 사사로운과 무관하게 모든 사건에 변호사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한다.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업무 특성 때문인지 변호사들은 그

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인정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변화 속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대우나 평가가 다양해지고 있다. 고된 업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사회적 평가가 예전 같지 않고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자조적인 반응을 하며 때로는 비하적인 표현을 하기도 한다.

간혹 그러한 표현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처음 품은 변호사로서의 직업관을 잊지 말고, 그 본질에 집중하자고 다짐한다.

아무리 사소한 고민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조언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것처럼, 나 또한 사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어 작은 일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내고자 한다.

기고



김영미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최근 광주시가 주관한 관광 산업 활성화 회의를 계기로 공·사석에서 산학관 관계자들을 만나 광주관광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 결론은 관광의 기본에 충실한 광주다운 관광 육성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의향, 예향, 미향으로 일컬어지는 광주 곳곳에는 이름에 걸맞는 풍부한 관광 자원이 내재해 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다큐투어리즘 현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양림동 근대 문화 유산으로 대표되는 문화 예술 공간, 맛칼스럽고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 나오는 남도 음식 등이 대표적이다. 민선 7기 들어 광주시가 3향(鄉)을 고유 브랜드로 광주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관광을 육성하겠다고 나섰다. 정말 좋은 구상이다. 관광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기대

기본에 충실한 광주 관광 산업을 기대한다

가 크다. 사실 지금까지의 광주 관광 산업은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중심이 되는 단조로운 마이스(MICE)관광이 주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광주시가 '의향', '예향', '미향'에 기반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 내고 관광객의 다변화와 사업의 다각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히 민간 여행사를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할 것인지, 관광진흥과 관광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어떻게 관광 인력을 양성하고 창업을 유도할 것인지 더 노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민선 7기 광주 관광 산업의 정책 기조 변화를 환영하며 몇 가지 고려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관광 행정 관료들이 핵심 파트너를 도외시한 채 일방통행식 행정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여행사·숙박시설·음식점·기념품점·쇼핑센터 등 관광 사업체

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광주 유일의 지역 관광 마케팅 기구인 광주관광컨벤션뷰로의 의견도 중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 다음으로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나 정책 간담회에 현장에서 일하는 관광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주 관광을 육성함에 있어서 문화 예술계와의 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관광보다 문화 예술에 너무 치우치면 관광 산업 육성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행사, 호텔, 게스트하우스, 기념품점, 관광해설사협회, 관광 운수 업체 등 다양한 관광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실효성 높은 관광 정책을 수립 실천해야 한다. 단기정책이던 중장기 정책이던 목표와 출구가 정확한 과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숙박 정책, 관광 기금과 같은 금융 지원 정책, 지역 청년을 관광 기획자 및 실행가로 양성하는 정책 등 관광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했

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관광 컨트론타워의 확립이다. 광주관광컨벤션뷰로는 지난 2007년 설립돼 지금까지 광주를 대표하는 지역 관광 마케팅 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지나온 10년보다 앞으로의 10년이 더 중요한 까닭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위상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광주시와 광주관광컨벤션뷰로가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기대한다.

특히 전남 관광과 상생 협력을 위해서, 컨벤션뷰로가 광주 관광 전반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대표 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예산 증대와 예산 편성의 자율성 보장, 전담 인력의 확충, 전 직원의 관광 전문성 강화 등 명실 공히 광주를 대표하는 관광 전담 기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관광은 사람을 끌어 들이고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 산업이다. 아무쪼록 민선 7기에서는 광주의 관광 산업이 관광진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양 날개를 달고 훨훨 날기 바란다.

社說

3년 만에 재발 메르스 확산 차단 방역 총력을

치사율이 20~40%에 달하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여 만에 국내에서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이 환자와 함께 비행기를 탔던 한 명의 밀접 접촉자와 12명의 일상 접촉자가 확인돼 자택에 격리 중이거나 중앙 유무를 관찰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에 사는 A(61)씨가 그제 오후 4시에 서울대병원에서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A씨는 20여 일간 쿠웨이트에 업무로 출장을 갔다가 전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귀국했다. A씨는 설사 증상을 보였지만 공항 검역에서는 의심을 받지 않고 입국장을 통과했다가 4시간 만에 민간 병원에서 의심 환자로 분류됐다. 정부의 검역 체계에 허점을 노출한 것이다.

정부는 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 등 밀접 접촉자 21명을 격리 조치하고 메르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광주에선 A씨와 함께 비행

기를 타고 2m 이내 거리에 있었던 B씨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택 격리 중이다. 또 광주·전남에서 12명이 A씨와 항공기에 동승한 일상 접촉자로 파악돼 잠복기인 14일 동안 관찰 보건소가 우선·문자로 연락하고, 의심 증상 발현 시 연락하도록 하는 '수동 감시' 중이다.

메르스는 국내에서 지난 2015년 5월 20일 환자가 처음 발생해 같은 해 12월 23일 '상향·중료'가 선언된 때까지 186명이 감염되고 그 중 38명이 사망해 엄청난 공포를 안겼다. 이로 인해 인구 이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줬다.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방역 강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지역 사회에서 2차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접촉자 조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민들도 중동 지역에서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여행을 자제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폭우에 쓰러진 식영정 소나무 회생시켜야

담양군 남면 지실 마을에 있는 식영정(息影亭) 곁을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적송(赤松)이 문화재청의 무관심과 담양군의 관리 소홀 등으로 고사하고 있다고 한다. 송강 정철이 '선산별곡'을 지은 곳으로 유명한 이곳 식영정 안의 소나무는 수령 2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폭우로 쓰러져 뿌리를 드러내고 있으나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높이 10m에 무게가 무려 26t에 달하는 거목인 이 소나무는 지난달 28일 오전 식영정 주변을 순찰하던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담양군은 이를 문화재청에 알렸지만, 문화재청은 식영정의 수목은 굳이 판단해 결정하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식영정은 문화재청 관리 대상이지만 주변 수목 등은 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담양군이 취한 조치는 5000원짜리 수액 2병을 맞힌 게 전부라니 한심한 일이다.

더군다나 담양군은 전문가 자문을 받

았다고는 하지만 회생이 어렵다는 성급한 판단에 따라 이 소나무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판단은 식영정의 경사가 심해 작업 과정의 안전을 담보하기 힘들고, 건물과 인접한 석축과 지반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이었다. 작업을 해야 할 포크레인의 현장 진입이 어렵고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주변의 소나무를 최소 10그루 이상 베어 내야 한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광주일보가 취재에 나서자 담양군은 적송 제거 결정을 번복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문화유산으로서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적송이 앞으로 버릴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내면 1월까지라고 한다. 우선 흙 밖으로 드러난 뿌리 부분에서 수분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보온재로 덮는 등 응급조치를 한 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회생시킬 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1달러의 가치는 1만 마르크로 뛰어 올랐다. 어제는 자살이 한 건 밖에 없었다. 대신 두 건의 파업이 있었다. 공무원들은 오랜 협상 끝에 인상된 봉급을 받았지만 그동안 돈의 가치가 하도 하락해서 이제는 그것으로 일주일에도 1리터의 우유도 살까 말까 하게 됐다. 다음 주에는 아마 단지 성냥 1갑밖에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실업자는 15만 명으로 상승했고, 불안 상태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었다."

독일 작가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Erich Maria Remarque)의 소설 '검은 오벨리스크'의 한 대목이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이 된 독일의 사회적 분위기를 묘사한 이 소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인플레이)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소설에선 화폐의 가치가 너무도 떨어지는 바람에 수십 마르크에 불과했던 상품들의 가격이 불과 몇 주나 몇 달 만에 수십조 마르크로 폭등한다. "우리 망한 거야, 아니면 부자가 된 거야? 독일인 중에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아는 놈은 아무도 없을 걸?"이라는 대목에는 인플레이에 망연자실한 독일인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는 '화폐의 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전반적·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의미한다. 최근엔 통화 팽창보다는 '물가 수준의 지속적 상승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단 며칠, 몇 달 만에 1억~5억 원 이상 급등하는 과정을 보노라면 '바로 이런 게 인플레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실질 소득이 받쳐준다면서 별 문제가 아닐 테지만, 그런 것도 아니어서 걱정이다.

/홍행기 정치부장: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편 집 부 220-0649 정 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채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2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